

영암의 성장 가능성 대학생 눈높이로 확인했다

군, 경희대 학생 14명 참여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 운영 35박 36일 현장활동...BI·굿즈·시장 공간 디자인 등 도출

대학생들이 한 달 넘게 영암에 내려와 직접 경험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농촌 지역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함께 추진한 '2026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가 최근 35박 36일간의 현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주민과 함께 지역 과제를 수행하는 경희대 사회혁신학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됐다. 경희대 학생 14명은 영암군 8개 부서와 협업하며 영암 방문의 해 브랜딩과 지역 공간·상품 디자인, 마을 활성화 방안 등을 직접 기획했다.

학생들은 "영암으로 영접조건" 슬로건

과 2027~2028 영암 방문의 해 BI를 개발하고 영암도기 굿즈와 영암물 디자인 개선탄, 미암면 소통카페 메뉴 개발, 송산마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특히 도기박물관 브랜딩에 참여한 학생들은 21일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개최하는 '국보 순회전'에 맞춰 유약 질감을 살린 카드지갑과 문진, 온도에 따른 변색 컵 등 전시 유물을 활용한 굿즈 30여종을 직접 개발했다.

이는 박물관의 전통 자산을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상품으로 전환해 국보순회전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영암군과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추진한 '2026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가 최근 35박 36일간의 현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를 모으고 있다.

또 지난 9일에는 월출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팝업 부스를 운영하며 현장 반응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브랜

드 영상과 굿즈, 로고송 등을 선보였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영암매일시장 공유공간에서 열린 성과

공유회에는 군 관계자와 주민, 상인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도 성과공유회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결

과를 직접 확인하고 격려했다.

강 부지사는 "청년들이 영암의 삶터에서 군민과 호흡하며 끌어낸 성과물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상상 모델이다"며 "영암의 고유 자산이 청년의 감각을 입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재탄생했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서연 학생은 "영암에서의 36일은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아이디어가 실제 브랜드로 이어지고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윤재광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영암의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제안된 과제들을 주요 사업에 반영하고 상품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완도 반값여행' 인기...관광객 방문 수요 증가

이달 말 2차 접수 예정...청년층 참여 비중 높아

완도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완도 반값 여행' 사전 신청이 높은 관심 속에서 조기 마감됐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완도에서 숙박, 식사, 체험, 특산품 구매 등을 통해 지출한 비용의 50%를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접 지역(해남군, 강진군) 주민을 제외한 타 지역 관광객이며, 지원 금액은 개인(1인) 기준 최대 10만

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 단체(가족, 최대 5인)는 50만원이다.

사전 신청은 사업 시행 전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원활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당초 예상 인원을 웃도는 신청자가 몰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1차 사전 신청은 4월 30일까지 총 4700건,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참여하며

조기 마감됐다.

사전 신청 데이터를 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에 신청자 7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환급률이 최대 70%여서 참여 비중이 높음으로 분석됐다. 2차 접수(6월 방문객)는 5월 말 중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는 신지 명사십리, 해양치유센터 등 여름 휴가지로도 인기가 많은 만큼 2차 신청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현장에 몰린 관광객들 모습. 사진제공=완도군청

고려청자박물관, '온비드'로 온라인 경매

APEC 정상회의 선물작품 등 평가 50% 시작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우리나라 고려청자의 정수를 온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 쉽게 청자를 감상·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 온비드(온나라 공공자산 구매시스템)에서 '제3회 고려청자 온라인 경매'를 개최한다.

관련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가 공공자산 입찰·경매 통합 사이트로, 누구나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경매는 고려청자 연구와 재현의 앞장서고 있는 고려청자박물관이

엄선한 청자 작품(관요 재현작)을 선정했다. 전통 화목작품으로 '청자연화형주자와 청자양각죽절문병', 일반작품으로 '청자복숭아연적, 청자상감운학문주병, 청자상감운학문합' 등 총 5점이다.

이번 경매는 공공기관이 청자를 온라인 공공플랫폼에서 경매 방식으로 공개함으로써 전통문화 자산을 국민 누구나 투명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출품작 중 '청자상감운학문합'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참가



청자연화형주자. 사진제공=강진군청

국 국민들에게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직접 제작해 선물한 작품이어서 그 의미가 각

별하다. 낙찰 발표는 26일이며 참여 방법은 '온비드' 접속→회원가입→공매 참여(공고 검색: 고려청자, 강진청자) 순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진도,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군민건강 실태조사

7월 31일까지 성인 878명 대상

진도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보

건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통계 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의료 이용 등을 파악해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528개 표본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8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 컴퓨터(PC)를 활용한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 의료 이용 등으로 조사 후에는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도 지급한다. 진도=서석진 기자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